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한반도 봄' 앞당기고 대선 영향 줄까

북·미 대화 촉매제 가능성

식량난·코로나도 개선 카드 거론

박지원 국정원장 역할론 주목

남북이 지난 27일 통신연락선 복원 합의를 이루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다시 궤도에 오를 것 인지 주목된다. 남북의 통신연락선 복원은 하노이 노딜 이후, 후퇴한 거대한 남북 관계에 있어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관전포인트는 '남북대화 재개' 여부다. 여기에는 남북정상회담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남북을 넘어 미국과 일본, 중국의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다는 점에서 성사 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반 남북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하이라이트 통화를 포함해, 화상 정상회담 등 직접 소통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남북 정상이 친서를 수차례 교환하며 서로 간의

관계개선 의지를 확인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서는도 교착상태를 풀기 위해 문 대통령과 다시 만나려 할 수 있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힘을 실어 준다.

일단 청와대는 선을 긋고 있다. 청와대는 28일 남북이 정상회담 개최를 논의 중이라는 한 외신 보도를 부인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남북 정상회담 개최 논의 중"이라는 외신 보도는 이미 밝혔듯이 사실이 아니다"라며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한국 정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남북이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남북 정상 간 대면 접촉, 화상 회담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27일 오후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배경에 대해 "남북 정상이 친서 교환 등을 통해 남북관계가 오랜 기간 단절돼 있던데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조속한 관계 복원과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힌 바 있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로 관측되고



박지원 국정원장

특히,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2018년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 남북·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을 실현시켜 나간다는 데 합의한 만큼 남북미의 대화 재개 움직임은 점차 가시화 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대북통인 박지원 국정원장의 역할이

있다.

여기에 미국 역시 북한을 향해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향후 북미대화 재개 움직임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남북관계의 근본적 진전을 위해서는 북미대화가 상수인 상황이다.

주목되고 있다. 박 원장은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여 왔다. 미국과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면서 북미 대화 계기 마련과 한일 관계 개선에 주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의 공조 관계 복원을 통해 남북 대화의 계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 박 원장이 그리고 있는 그림으로 읽혀진다.

박 원장이 지난 6·15 남북정상회담 주역이라는 점에서 북한 측의 신뢰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추진 카드도 박 원장의 그림 가운데 하나다. 코로나 19 상황이 진정되고 교황의 방북이 현실화된다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북한의 고질적 식량난을 지원하는 방안과 함께 코로나 19 방역도 남북 관계 개선의 카드로 거론되고 있다. 여유가 있는 쌀과 비료를 지원하는 한편, 코로나 19 진단 키트와 백신 지원 등을 통해 남북 화해 모드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는 문 대통령의 임기 말 레임덕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여권의 정권재창출에도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남북 관계는 대통령이 주도하는 현안이기에 때문이다. 오는 11월 집단 면역이 이뤄지고 내년 상반기 K-백신 생산 등으로 백신 주권을 확보하는 한편, 내년 초 남북 정상회담 등이 가시화된다면 대선 정국에서 여권에 유리한 전선이 형성될 수 있다.

하지만, 내년 대선이 8개월도 채 남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비핵화와 경제 제재의 방정식을 풀 수 있는 북미 대화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김정은 위원장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통 큰 합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선급하게 추진했다가는 야권에서는 내년 대선을 겨냥한 또 다른 '북풍 공작'이라는 공세에 나서면서 역풍도 볼 수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이라는 작은 지점에서 다시 재개되고 있는 국면"이라며 "통신선 복원은 남북 정상간의 소통을 이끌면서 북미 대화의 촉매제가 되어 한반도의 봄을 앞당길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통합 문화전당장 10월 공모 통합 전당 정원 130명 수준

아특별 개정안 후속조치 보고회 전당장·기획운영관·7과로 구성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별) 후속 조치로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문화전당 직제와 조직 개편의 대략적인 윤곽이 나왔다. 통합되는 아시아문화전당 전당장 공모는 10월께 진행되고, 전당재단의 대표는 연말이나 내년 1월께 선임 절차에 돌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포럼(지원포럼)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정착화시민연대(시민연대) 등 시민협의체는 28일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245 다목적 강당에서 아특별 개정안 후속조치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직제와 인력, 향후 후속조치 로드맵에 대한 추진사항을 알리고 지역사회 제언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현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 김요성 광주시문화도시정책관, 지원포럼 관계자, 시민연대 대표 등 시민협의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협의체 관계자에 따르면 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 일원화로 새롭게 출범하는 문화전당 조직과 직제는 전당장(고위공무원 '나'급, 임기제), 기획운영관, 7과로 구성돼 있다.

또한 통합 전당의 전체 정원은 약 130명 규모이며 8월 말부터 최소 3개월에 걸쳐 채용절차를 진행

할 예정이다. 또한 30여 명 안팎의 전당재단 인원 채용은 전당 채용이 마무리된 이후에 진행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전당의 정규직 정원이 50여명, 문화원 정규직 정원이 96명 정도다. 그러나 전당의 전문위원 18명이 임기를 마쳐 현재는 30여명이며, 문화원도 지난 2월 아특별 통과 이후 공석이 된 인원을 제외하면 현재 80여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향후 출범하게 될 통합 전당의 정원 130여명은 통폐합 관점에서 보면 적은 수가 아니라는 의견이 대두된다. 지역문화관계자는 "당초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문화전당 활성화와 안정화를 위한 기본 토대는 마련됐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전당장 직급의 경우 당초 지역에서는 최소한 고위공무원 '가'급인 실장급이나 그 이상을 요구했지만 '나'급이 거론된다. 협의체 관계자는 "지난 5년간 성과 등에 있어 전당이 내세울 만한 뚜렷한 성과가 없었던 데다 향후 직제와 인력 등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고위공무원 '나'급인 국장급인 적정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은 "총정원과 관련 기재부와 예산 협의, 고위공무원단 관련해서는 인사혁신처와의 협의를 진행중이며 이후 최종 확정된 직제와 관련된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 전당 정원은 보는 관점에 따라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다"며 "그러나 전당 기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정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대화하는 민주 송영길-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29.8%, 이재명 23.7%, 이낙연 15.8%

한길리서치 대선 지지율 여론조사

여야 대권주자 간 가상 양자 대결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다시 앞질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조사한 결과, 가상 양자대결에서 윤 전 총장 지지율은 41.1%로 이 지사(36.9%)를 앞섰다. 2주 전인 지난 14일 발

표된 이전 조사에서는 윤 전 총장이 36.0%로 이 지사(43.9%)에 7.9%포인트 뒤졌었다. 윤 전 총장과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와의 양자대결에서는 윤 전 총장이 41.4%, 이 전 대표 33.7%로 오차범위 밖이었다.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만만치 않은 강세를 보였다. 이 지사와의 양자대결에선 30.9%로, 이 지사(38.8%)에 7.9% 포인트 차였다. 이 전 대표와 맞붙는 경우 이 전 대표 35.9%, 최 전 원장 29.8%로 오차범위 내였다.

여야 대선후보 지지율은 윤 전 총장이 29.8%로 1위였고 이 지사 23.7%, 이 전 대표 15.8% 순이었다. 민주당 대선주자 지지율 조사에서는 이 지사가 27.6%로 가장 높았고 이 전 대표는 21.4%였다. 추미애(6.2%)·박용진(4.5%)·정세균(2.7%)·김두관(1.7%) 후보 등의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범야권 지지율은 윤 전 총장이 28.5%,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11.8%를 기록했다. 최 전 원장은 8.7%, 유승민 전 의원은 7.8%,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3.7%였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된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8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바른자세, 꾸준한 운동, 세심한 관리로
튼튼한 '인생' 튼튼하게 '즐기세요'

척추 무릎 어깨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MODERN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